



김 무 진
(주)CJ제일제당 사료BU 부장 축우 PM

낙농 사료산업 결산 및 내년도 전망

■ 2007년 낙농사료산업 결산

‘국제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라’.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다’라는 말은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시대적 과제다. 국내 축산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2007년은 그 어느해보다 국내 축산업계에 많은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들도 국내 축산산업이 많이 흔들렸던 한해였다.

지난 4월부터 한·미 FTA타결, 그리고 연이은 미산쇠고기 수입은 축산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바이오에너지로 인한 곡물가의 인상 및 해상운송비의 상승은 연이은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되고, 낙농뿐만 아니라 축종전반에 축산물생산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곡물가의 인상은 지난 40여년의 사료업계 역사를 돌이켜 봐도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의 사료가격인상은 1997-98년의 IMF기간이 아마 유일한 경험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는 1\$당 880원이던 환율이 1,750원까지 치솟으면서 단기간 급등했다가 약 1년만에 다시 1\$당 1,100~1,250원 선으로 안정되면서 약간의 산업 구조조정 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으나 지금의 원료가격 상승현상은 언제쯤이면

사료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조차 힘든 실정이다.

특히 국내 낙농산업도 이런 변화에 대한 대처 외에도 내부적으로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낙농제도개선 및 우유소비 촉진 등이 내부적으로 선결해야할 과제들이다.

정부가 낙농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 기관 단체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표류를 계속하고 있고, 백색시유 시장은 개방이 되었을 경우 우리의 경쟁력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해도산 시유의 중국 진출은 국내 낙농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2007년도는 낙농산업에 있어서 배합사료의 생산공급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시행된 착유우 도태정책 및 원유감산정책으로 올해도 배합사료업체의 낙농사료 생산공급량은 1,450천톤수준으로 전년비 5.8%의 감소가 예상된다.

낙농사료 생산량의 감소의 원인중의 하나는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2007년 6월 현재 젖소 사육두수는 45만 6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하였으며, 가임 암소 두수도 31만



5천두로 2.8% 감소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젖소 도축이 감소되면서, 2세이상 두수 감소폭은 둔화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 두수가 8만 9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하였고, 1~2세 두수는 10만 4천두로 4.6%, 2세 이상 두수는 26만 3천두로 2.6% 감소하였다.

2세 이상 두수 중 경산우 두수는 26만두로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하였고, 착유우두수도 2.2% 감소한 22만두였다. 이런추세라면 내년도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질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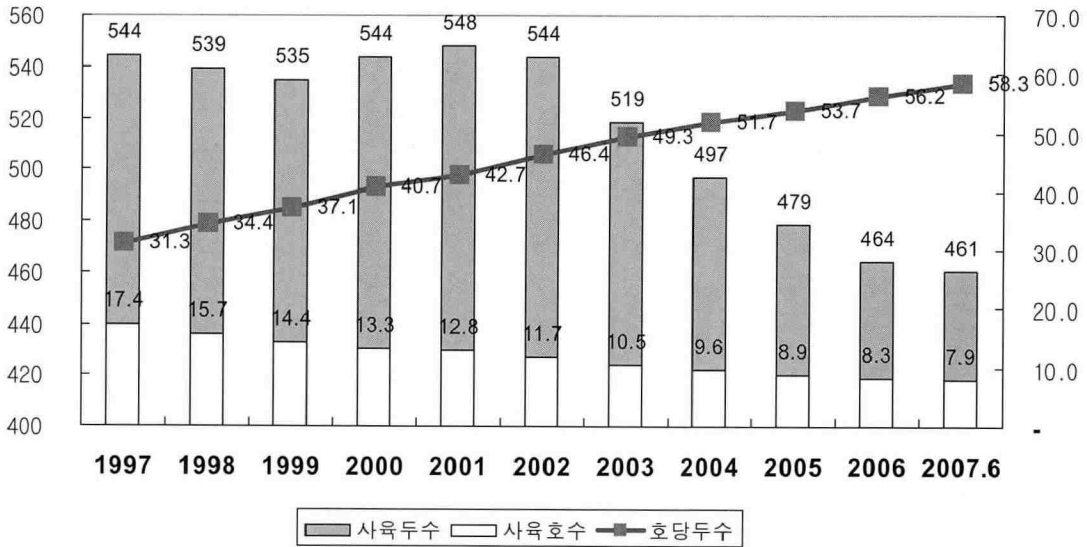
분석된다.

낙농사료 생산량 감소원인 중 다른 하나는 TMR사료의 증가로 예상된다.

TMR사료의 경우는 배합사료와는 다르게 아직 정확한 생산량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측만 가능한 상태이다.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젖소사육두수의 경우 '97년 544천두에서 '06년 464천두로 약 14.8% 감소하였으나 배합사료의 경우는 2,087천톤에서 1,539천톤으로 약 26.3% 감소하였다.

연도별 사육두수/호수변화



단위 : 천두, 천호, 천톤, kg, 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육두수	544	539	535	544	548	544	519	497	479	464
사육호수	17.4	15.7	14.4	13.3	12.8	11.7	10.5	9.6	8.9	8.3
배합사료량	2,087	1,883	1,916	1,891	1,771	1,764	1,744	1,632	1,587	1,539
두당산유량	5,882	6,032	6,135	6,594	6,763	7,017	7,102	7,286	7,420	7,546



이수치는 젓소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비율보다 더 많은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두당산유량이 10년전보다 28.3% 증가하였다는 수치를 감안했을 경우 많은 농가들이 목장의 급여시스템을 배합사료에서 TMR사료로 옮겨 갔다는 것을 알수있다. 위의 자료로 대략적인 추측을 해볼 경우 TMR사료 생산량은 거의 배합사료 생산량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런 변화는 배합사료업체의 낙농사료 마케팅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배합사료업체도 TMR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TMR사료는 목장의 생산성 및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양가의 구매의지를 볼 때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점점 낙농용 배합사료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08년 낙농사료 전망

2007년 전체적인 낙농산업을 돌아보면 전년 말 예상 했던대로, 원유 생산 쿼터제를 실시한 이후 농가수의 감소,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젓소 사육 규모가 46만두까지 감소하였으나, 원유 생산량은 큰변화가 없어 고능력우 위주의 사양이 된것으로 판단되며, 원유 소비량이 줄어 분유의 재고량이 늘어난 한 해였다. 또

한 수입량도 예년에 비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소비량은 생산자단체의 우유소비촉진행사 및 낙농자조금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해 우유를 소비하는 계층의 줄어들어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2008년도 배합사료의 경우는 올해보다 약 4.1% 감소한 1,390천톤 정도 예상되며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세가 연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공급량은 크게 변화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 대세다.

따라서 그만큼 고능력우 사양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고, 사료업체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춘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유업체에서도 기존의 우유소비 타겟에서 새로운 우유소비 타겟을 겨냥한 신제품 그리고 다양한 제품개발로 우유소비를 촉진하여, 국내 우유소비를 확산해야 만이 어려운 현 낙농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 및 수입축산물, 그리고 폭등하는 원료에 의한 사료비 부담등의 직접적인 난관에 봉착한 생산농가는 더욱 높은 생산성을 위주한 목장 경영으로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비용 대비 최고의 수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